유승민, 대한체육회장 도전…"경험·추진력·소통 자신있다"

"IOC 선수위원 등 경험 토대로 한종목 아닌 전체 체육에 기여할 기회"

내년 초 예정된 차기 대한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최근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출신' 유승민<사진> 전 대한탁구협회 회장이 가장 먼저 도전장을 내면서 선거전에 불이 붙기 시작하는 양상이다.

유 전 회장은 9일 탁구협회 임시대의원총회에서 회장직 사임 의사를 밝히고 체육회 회장 도전을 공식화했다.

2004년 아테네 올림픽 탁구 남자단식 금메달리스트인 유 전 회장은 2016년부터 지난달 폐막한 파리 올림픽까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으로 활동했고, 2019년부터는 탁구협회장을 맡아 행정 경험을 쌓았다.

종목단체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국제 체육행정 활동도 해 온 그가 출마 의사를 밝히며 3선 도전이 유력하게 점쳐지는 이기흥 현 회장의 강력한 대항마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 전 회장은 "IOC 선수위원과 경기 단체장, 2018평창기념재단 이사장 등 경험을 토대로 한 종목이 아닌 전체 체육에 기여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왔다"고 전했다.

고(故) 조양호 전 회장의 별세로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2019년 5월 탁구협회장에 오른 유 전 회장은 2021년 11월 선거에서 재선돼 4년 더 임기를 보냈다.

2016 리우데자네이루와 2020 도쿄 올림픽에서 모두 노메달에 그쳤던 한국 탁구는 파리 올림픽에서 혼합복식과 여자 단체전 동메달 2개를 수확했다. 처음으로 세계탁구선수권대회를 유치해 올해 2월 부산에서 연 것도 유 전 회장 체제의 성과였다.

유 전 회장은 "많은 분이 제게 어리다고 하지만, 어린 사람 중 가장 경험이 많은 사람이 저다. 선수부터 지도자, IOC 위원, 경기단체장까지 35년 경력"이라며 "그런 경험에 젊은 세대 다운 창의력, 추진력, 체력 등은 누구와 비교해도 제가 가장 앞선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소통도 강점이다. MZ 세대 선수들과 '챌린지'도 같이할 수 있고, 원로님들도 모시고 공경하며 '중간 역할'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른 젊은 후보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 젊은 후보가 저만큼 다양한 경험을 지닐 수 있을까 싶다"며 현장 곳곳과의 '공감 능력'도 장점으로 부각했다.

유 전 회장이 꿈꾸는 대한체육회장의 모습은 "어려울 땐 체육인들의 '총알받이'가 되고, 좋을 때는 체육인들을 돋보이게 하는 리더"다.

그는 "대한민국 스포츠가 국민들의 박수를 받기를 바란다. 성적에 대한 칭찬뿐만 아니라, 국민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고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데 대한 존중을 받았으면 한다"면서 "자녀를 선수로 키워 보고 싶다는 꿈을 심어주는 체육계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대한체육회장이 된다면 추진하고 싶은 사업으로는 학교 스포츠 재정비와 'K스포츠'의 콘텐츠화를 통한 수익 창출을 우선으로 꼽았다.

유 전 회장은 "학교 스포츠가 완전히 무너졌다. 파리에서 금메달 13개를 따 와서 국민 여러분께 즐거움을 드렸으나 다음 올림픽은 또 모른다. 2050년쯤 가면 선수를 내지 못할 거란 우려가 있다"면서 "학교 스포츠와 클럽 스포츠를 전문화해 어릴 때부터 육성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또 "K팝, 드라마, 푸드, 컬처, 다음은 K스포츠라고 생각한다. 아직 막연해 보이지만, 무궁무진한 콘텐츠를 산업으로 키워 자체적으로 수익을 마련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보고 싶다"면서 "전체적인 스포츠 밸류(가치)를 '업' 시키는 역할을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유 전 회장은 "어려운 도전이 되겠지만, 도전이라는 건 어려워야 그 가치가 있는 것 아니겠나"라며 "이제껏 걸어온 길은 도전의 연속이었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 결과가 있었기에 도전하는 것에 거리낌이 없으며 결과가 두렵지도 않다"고 의지를 다졌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카누 선수단, 전국대회서 '금빛 물살'

국민체육진흥공단 카누 선수단이 '제42회 전국카누선수권대회'에서 카약 4인승 경기를 펼치고 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카누팀 제공>

광주 금3·은4·동3개 등

광주·전남 카누 선수단이 '제42회 전국카누선수권대회'에서 빛나는 활약을 펼쳤다.

최근 부여백제호 카누경기장에서 끝난 이번 대회에서 광주 카누 실업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남일부에서 메달 10개(금3·은4·동3)를 획득했다.

카약 종목에서 이경훈이 K-1 500m 결승선을 1분47.2초만에 통과하며 1위에 등극했다.

K-2 500m와 1000m에서 은메달을 합작한 이동희와 정주환은 신수복·이경훈과 K-4 500m와 1000m 동메달도 땄다.

카누에서는 황선홍이 C-1 500m에서 1분 53.3초로 금메달을 획득했고, C-2 200m 동메달을 추가했다. 그는 김이열과 함께 나선 C-2 500m에서 금메달, C-2 1000m에서는 은메달을 만들었다.

김이열은 C-1 1000m 은메달도 추가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김동수 감독은 "10월 전국체전을 앞두고 전초전으로 이번 대회를 뛰었는데 좋은 성과를 거뒀다. 전국체육제전에서도 좋은 결과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남선수단의 입상도 이어졌다.

전남체육회 정다흰은 남일부 K-1 500m 2위에 올랐다. 여대부에서는 목포해양대 주연우가 C-1 200m와 500m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다.

전남체고 박철웅은 이진솔과 K-2 200m에 금메달을 만들었고, K-1 200m 동메달도 얻었다. K-2 1000m 동메달을 이룬 신진성·이호준은 박태준·이진성과 K-4 200m 우승을 차지했다.

여일부에 나선 전남도청 선수단(권은희·윤세정·임성화·탁수진)은 K-1 200m, K-2 500m 은메달, K-1 500m·K-2 200m·K-4 500m 동메달을 수확했다.

'카약 꿈나무' 삼호중 김권호·김형언·박상민·변승진은 K-4 500m·K-4 200m 은메달, K-2 200m 동메달을 획득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

장애인 스포츠 꿈나무들 전남서 기량 펼친다

내일까지 전남도장애학생체육대회

전남지역 장애인 스포츠 꿈나무들의 체육 한마당이 열렸다.

'제6회 전남도장애학생체육대회'가 오는 13일까지 여수·영암·목포·함평·순천 등 5개 지역에서 종목별 분산 개최된다.

11일 막을 올린 이번 대회에는 보치아·수영·배드민턴(이상 여수), 육상(영암), 실내조정·디스크골프·역도(이상 목포), e스포츠(함평), 슐런(순천) 총 9개 종목에 473명의 선수단이 참가했다.

장애 유형별로는 지체·뇌병변장애 23명, 시각장애 3명, 청각장애 6명, 지적장애 266명 총 298명이 나섰다.

장애 학생의 성취감과 도전의식 고취를 위해 마련된 이번 대회는 전남도교육청의 지원으로 치러진다. 이번 체전 기록에 따라 2025년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전남 대표로 우선 선발된다.

박정현 전남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은 "장애학생들이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펼치고, 목표한 바를 성취하길 바란다"며 "장애학생들의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선수들을 지속적으로 발굴·육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종목별 상위 1~3위에게는 상장과 메달이 수여되며 대회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전남장애인체육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조선대, 배드민턴 전국대회 전 종목 석권

창단 26년 만…4개 종목 금

조선대 배드민턴팀이 팀 창단 26년 만에 처음으로 전국 대회 전 종목을 석권했다.

지난 3일부터 10일까지 8일간 강원 양구청춘체육관에서 열린 '2024 김학석배 전국연맹종별배드민턴선수권대회' 대학부 경기에서 조선대는 여대부 단체전, 개인 단식, 개인 복식, 혼합 복식 등 4개 종목 모두 정상에 올랐다.

조선대는 먼저 단체전 결승에서 안동과학대를 상대로 3-0승을 거두며 우승을 차지했다.

대학부 혼합복식에서는 조선대 이아영이 추찬(김천대)과 금메달을 합작했다.

결승에서 이아영-추찬 조는 엄상하(경희대)-김나현(중앙대) 조를 2-0으로 꺾으며 1위에 올랐다.

'집안싸움'이 전개된 여대부 단식 결승에서는 배주영이 이은희를 상대로 2-1로 승리하며 나란히 1·2위에 올랐다.

여대부 복식에서도 배주영-이아영 조가 결승에서 팀 동료 엄수빈-이은희 조를 만나 2-0승을 거두며 금·은을 나눠 가졌다.

10년째 조선대 배드민턴팀을 이끌고 있는 김동현 감독은 "전국대회 전 종목 우승을 언제 다시 해볼지 모르겠다. 조선대 배드민턴팀 서영환 부장교수님을 비롯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신 주변 분들께 감사한 마음이다"며 "10월 전국체육대회에서도 우승을 하겠다는 목표로 남은 기간 선수들과 열심히 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스마일 점퍼' 우상혁, 다이아몬드 파이널 2연패 도전

매큐언·탬베리와 3파전 예상

'스마일 점퍼' 우상혁(28·용인시청)이 추석 연휴인 15일 오전(이하 한국시간)에 다이아몬드리그 파이널 2연패를 향해 도약한다.

대회 조직위원회는 11일 2024 세계육상연맹 다이아몬드리그 파이널 출전자 명단을 공개했다.

올해 파이널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14~15일에 열린다.

우상혁이 출전하는 남자 높이뛰기 경기는 한국시간으로 15일 오전 3시 20분에 시작한다.

2024년 다이아몬드 리그는 14개 대회에서 쌓은 랭킹 포인트로 순위를 정해 '챔피언십' 격인 15번째 브뤼셀 파이널 대회에서 최종 승자를 가린다.

남자 높이뛰기 파이널에는 상위 1~6명이 출전한다.

하지만, 2024 파리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자 다이아몬드리그 랭킹 포인트 1위(30점)인 해미시 커(뉴질랜드)와 랭킹 포인트 6위(14점) 무타즈 에사 바르심(카타르)은 이번 파이널에 불참한다.

결국, 파리 올림픽 2위 셸비 매큐언(미국), 2021년에 열린 2020 도쿄 올림픽 챔피언 장마르코 탬베리(이탈리아), 로메인 벡퍼드(자메이카), 올레 도로슈크(우크라이나), 토마스 카르모이(벨기에)가 우상혁과 함께 브뤼셀 파이널에 출전한다

기록과 이력을 고려하면, 우상혁과 탬베리, 매큐언이 우승을 놓고 3파전을 벌일 전망이다.

우상혁은 '디펜딩 챔피언'의 완장을 차고서 올해 파이널에 출전한다.

지난해 9월 17일 미국 오리건주 유진에서 열린 2023 다이아몬드리그 파이널에서 우상혁은 2m35를 넘어 정상에 올랐다.

한국 육상 최초로 다이아몬드리그 파이널에 진출한 우상혁은 다이아몬드 모양의 '챔피언 트로피'를 들고 더 빛나는 한국 육상 최초의 이정표를 세웠다.

역대 다이아몬드리그 파이널 남자 높이뛰기에서 2년 연속 우승을 차지한 건, 바르심(2014~2015년)과 탬베리(2021~2022년), 단 두 명뿐이다.

우상혁은 역대 3번째 남자 높이뛰기 2연패에 도전한다.

우상혁은 8월 11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2024 파리 올림픽 결선에서 2m27로 7위에 그친 뒤 뜨거운 눈물을 쏟았다.

대회에서 받은 상처를 다른 대회에서 봉합하기로 한 우상혁은 짧은 휴식을 취한 뒤, 다이아몬드리그 개별 대회에 나섰고 2년 연속 파이널 진출에 성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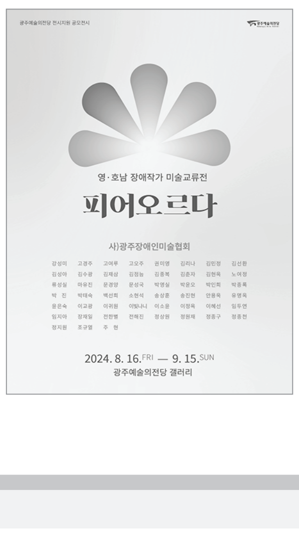
/연합뉴스

즐거운 문화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2024 광주상설공연(9월)

일시 : 2024-09-01(일) ~ 2024-09-29(일)
매주 토요일~일요일 오후 5시
*9.16.(월)~17.(화) 오후 5시 한가위 특별공연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 8372



GAC 공모전시 영·호남 장애작가 미술교류전 : 피어오르다

일시 : 2024-08-16(금) ~ 2024-09-15(일)
공연 있는 날 10:30 ~ 19:30
공연 없는 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